

회복탄력도시 전략에 따른 기능별 대피장소 분류체계

중국 베이징시 | 모종혁 통신원

베이징시는 ‘회복탄력도시’ 건설 전략에 따라 장기적인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지진 대피공간 운영체계를 구축. 체류 기간 기준으로 ‘긴급형, 단기형, 장기형’으로 구분하고, 기능 기준으로 ‘종합형, 전문형, 특정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지진 대응의 핵심 거점인 종합형 옥외대피장소는 ‘긴급 집결 기능, 기초 생존 인프라 제공, 현장 지휘 및 정보 허브’ 등 기능으로 구성

‘회복탄력도시’ 건설 전략에 따른 지진 대피공간 운영체계

- ◎ 베이징시가 지진 옥외대피장소 운영을 위해 마련한 장기 정책은 2021년 10월에 발표한 《회복탄력도시 건설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加快推進韌性城市建設的指導意見, 이하 ‘지도의견’)》으로, 도시 안전을 사전 예방·대응·복구의 전 과정으로 확장하여 아래의 방향을 제시
 - 방재공간 확보 의무화: 공원, 녹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등을 대피장소로 지정
 - 평시·재난 시 공간 결합: 일상 공간을 재난 대응 공간으로 전환
 -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 계획, 건설, 운영, 훈련, 평가 등을 포함
 - 사회 참여 확대: 지방정부 주도 + 시민 참여 구조
- ◎ 2024년 3월에는 장기 계획으로 《베이징시 회복탄력도시 공간 특별 계획(北京市韌性城市空間專項規劃) 2022~2035》를 발표함
 - 도시권·도시그룹·지역단위·생활권·시설단위 등 5단계 공간체계 구축, 다핵 분산형 대피 구조체계 구축, 대규모 대피공간 확보 등을 장기적인 목표로 제시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운영 상황

- ◎ ‘회복탄력도시’ 전략에 따라 시 전역에 2,200개 이상 옥외대피장소를 마련
 - 공원, 광장,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등으로 확보한 옥외대피장소의 총면적은 3,300만 m² 이상임. 이를 통해 시 전역에 커버리지를 구축했으며 지진 발생 시

시민들은 근거리 장소로 대피가 가능

- 옥외대피장소를 체류 기간 기준으로 ‘긴급형, 단기형, 장기형’으로 구분
 - 긴급형: 24시간, 인명 구조 및 집결, 응급 처치, 기본 물자 공급 등 초기 단계
 - 단기형: 2~15일, 식량·물 지속 공급, 위생 관리, 임시 생활 유지 등 진정 단계
 - 장기형: 15~100일, 장기 체류, 의료·심리 지원 강화, 임시 사회 시스템 운영 등 회복 단계
- 옥외대피장소를 기능 기준으로 ‘종합형, 전문형, 특정형’으로 구분
- 재난의 유형·운영 목적·수용 대상에 따라 다층적으로 설계된 기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베이징시 운영체계의 특징임

기능별로 분류한 지진 옥외대피장소

○ 종합형 응급대피장소

- 기본 역할: 지진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대규모 인구를 단시간 내 수용하는 1차 안전 플랫폼의 역할 수행
- 주요 기능 구성
 - 긴급 집결 기능: 재난 직후 주민이 가장 먼저 이동하는 공간, 지역 단위 인구를 빠르게 수용
 - 기초 생존 인프라 제공: 임시 텐트 설치 구역, 급수·비상 식량 배급, 이동식 화장실 설치, 응급 전력 공급
 - 현장 지휘 및 정보 허브: 임시 지휘소 설치, 방송 및 안내 시스템 운영, 가족 찾기 및 실종자 정보 관리
- 공간 특징
 - 대형 공원, 광장, 체육시설 등 개방형 대면적 공간
 - 지하철, 철도, 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한 교통 접근성 우수
- 운영 의미
 - 대피, 초기 생존 유지, 정보 통제 등 기능 수행
 - 재난 대응의 시작점 역할

○ 전문형 응급대피장소

- 기본 역할: 특정 재난 유형에 최적화된 전문 대응 거점
- 유형별 세분화
 - 홍수 대응: 고지대 위치, 배수 시스템 강화, 방수 물자 및 구조 장비 비치
 - 극한기후(폭염·한파 등) 대응: 냉난방 설비 확보, 실내 전환 가능 구조, 냉방 쉼터 또

는 난방 공간 운영

- 지질 재해 대응: 산사태 위험지역 외부에 위치, 장기 체류 가능 시설 확보
- 산불 대응: 산림 외곽 위치, 소방 및 구조 인력 지원 기능 포함
- 감염병 대응: 격리 기능, 이동형 병상 설치 가능, 방역 동선 분리 설계
 - 운영 특징: 평시에는 일반 공공시설이지만 재난 시에는 즉각 기능 전환
 - 운영 의미: 특정 재난에 대해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복합재난 상황에서 기능 분담 구조 형성

◎ 특정형 응급대피장소

- 기본 역할: 재난약자의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피공간
- 주요 대상: 노인, 영유아 및 임산부, 장애인, 환자 및 부상자
- 핵심 기능
 - 무장애 환경: 경사로·휠체어 동선, 장애인 화장실
 - 의료 및 돌봄 기능: 의료진 상주 또는 연계, 약품 및 응급 치료
 - 심리 지원: 트라우마 케어, 상담 서비스
 - 생활 편의: 수유실, 가족 단위 공간
 - 운영 방식: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해 연계한 보건소, 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 운영 의미: 재난 대응의 형평성 확보, 사회적 약자의 생존을 향상

베이징시 대피공간 운영체계의 특징

- ◎ 베이징시의 ‘회복탄력도시’ 전략은 단순한 옥외대피장소의 운영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설계한 구조
 - 전면적 시스템 통합: 공간계획 + 기반시설 + 운영관리 + 사회체계 결합, 단일 시설이 아닌 도시 전체 네트워크 운영
 - 평시 + 재난 시 결합 기반 고효율 구조: 기존 도시 인프라 활용, 시설을 따로 만들지 않음
 - 다층 분산형 구조: 베이징시 전역을 39개 도시그룹으로 분할, 생활권 단위 대응 가능
 - 기술 기반 스마트 운영: 디지털 지도 기반 관리, 실시간 위험 감지, 통신 인프라 확보

<https://baijiahao.baidu.com/s?id=1856266067369350063>

https://mp.weixin.qq.com/s?_biz=MzAwNTQ5NDcxMw==&mid=2649524499&idx=1&sn=3c1e9dfb65b8e8f3486ba72d8397d065&chksm=8303ebc5b47462d34d0aea1596f045226bc4d266124d836c05728761f3bdca722f0eb0c86070&scene=27

https://www.beijing.gov.cn/zhengce/zhengcefagui/202403/t20240325_3599383.html

<https://baike.baidu.com/item/关于加快推进韧性城市建设的指导意见>